

통계로 본 서울 노동구조 및 직장인 자화상

[e-서울통계 79호]

정보공개정책과(행정국)

- 서울 고용노동의 구조 변화에 대한 주요특징과 직장인들의 직업관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통계지표로 정리하였으며, 각종 고용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본문의 주요 내용은 서울의 고용분야 자료를 중심으로 연령별, 직업별, 산업별, 교육정도 등에 따른 노동구조의 변화 및 서울 직장인들의 직업관 등을 통계자료로 살펴보고, 노동구조 변화와 직장인 자화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1. 『요약』
 2. 『노동구조의 변화』
 3. 『직장인 자화상』
- 주로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사회조사'임.
 - 활용된 자료는 가장 최근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원통계의 작성 특성에 따라 자료마다 활용가능한 시계열이 다르고, 통계에 따라 분석대상 연령이 일부 다름.
-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 조사자료는 조사대상, 표본규모 및 설계 방법 등을 달리하는 타기관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 필요함.
 - 통계표의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인구관련 통계는 추계인구, 총조사인구, 주민등록인구가 있고, 통계의 포괄 범위,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이용에 유의바람.

본문에서 주로 활용된 자료설명

○ 2013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 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조사대상 : 전국 표본조사구 약 32,000가구 내에 상주하는 자로서,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등 제외
 - ※ 서울은 매월 표본 조사구 약 4,000가구내에 상주하는 만 15세이상 가구원(가구당 평균 23명 정도)을 조사함.
- 조사대상 기간(시점) 및 시기 : 조사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을 조사대상주간으로 하며, 그 다음 주 1주간에 조사를 실시
- 조사주기 : 월(매월)
- 작성년도 : 시도별 자료는 1989년부터 공표(전국 자료 최초작성년도는 1963년)
1999년 5월이전자료는 구직기간 1주기준이고, 1999년 6월부터 구직기간 4주 기준 자료 함께 발표(년 주기로는 2000년 이후)
- 경제활동인구 상태별 분류 및 용어 정의
 - 만 15세이상인구(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 ※ 단 군인(직업군인, 상 근예비역 포함), 사회복지요원, 의무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함.
 - ▶ 취업자 : ①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 실업자(구직기간 4주 기준)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 비경제활동인구 :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함.

○ 2013 사회조사(통계청)

- 작성목적 :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
- 작성방법 : 본문의 내용은 만13세이상 서울시민 약 4천7백여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면접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이며, 지표의 성격에 따라 조사대상 기간(시점), 조사대상 연령 등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 전국은 17,664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000명 조사
- 조사대상 기간(시점) : 2013. 5. 11. ~ 5. 26.(16일)
 - 「지난 1주일」은 2013. 5. 4. ~ 2013. 5. 10. 동안임
- 조사주기 : 1년(매년)

목 차

I. 요약	1
II. 통계로 본 노동구조의 변화	2
1.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	2
2. 비경제활동인구	3
3. 취업자 연령구조	4
4. 청년층(15~29세) 취업구조	5
1) 청년층(15~19세, 20~24세, 25~29세) 취업자 및 고용률	
2) 청년층 인구	
3) 청년층 학력상태	
4)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업	
5. 종사상지위별(고용형태별) 취업자 구조	9
6. 산업별 취업자 구조	10
7. 직업별 취업자 구조	11
8. 교육정도별 취업자 구조	12
9. 주당 평균취업시간	13
III. 통계로 본 직장인 자화상	14
1. 고용의 안전성	14
2. 일·가정 우선도	15
3. 직업선택 요인	16
4. 일자리 만족도	17

I . 요약

■ (2003년→2013년 노동구조의 변화)

- (경제활동인구) 지난 10년 새 32만6천명(6.5%) 증가, 2003년 498만1천명 → 2013년 530만7천명
 - ▶ 남성 5만5천명 증가(2,921천명→2,976천명), 여성 27만1천명 증가(206만명→2,331천명)
- (고용률)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 2003년 59.2%→2013년 59.8%(남성 69.7%, 여성 50.7%)
- (비경제활동인구) 10년 새 16만7천명(5.5%) 증가, 2003년 304만6천명 → 2013년 321만3천명
 -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13만명 증가(986천명→1,116천명), 여성은 3만7천명 증가(206만명→2,097천명)
 - ▶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인구 10년새 22만8천명 증가하여 2013년 80만2천명,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25.0%
 - ▶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 및 가사(42.7%), 재학 및 진학준비(28.1%), 연로(13.9%), 취업준비(3.6%)
- (취업자 연령 구조) 55세이상 취업자 2012년부터 청년층(15~29세) 추월하기 시작
 - ▶ 55세이상 취업자 10년 새 43만명 증가하여 2013년 101만8천명으로 통계작성이래 첫 100만 넘어
 - ▶ 15~29세 취업자 10년 새 28만6천명 감소하여 2013년 88만1천명으로 통계작성이래 최저 수준
 - ▶ 2013년 전체 취업자 중 55세 이상이 20.0%로 서울 취업자 5명 중 1명이 55세이상 중·고령층

< 15~29세 청년층 취업 구조 >

- (취업자) 2009년(96만7천명)부터 100만명 아래로 떨어져, 2013년(88만1천명)에는 80만명대로 하락
- (고용률) 20대초반(20~24세) 고용률 10년 새 10.1%p 하락 : 2003년 52.2%→2013년 42.1%
- (학력상태) 15~29세 인구 중 학력상태가 재학 중인 인구 비율 : 1990년 33.3% → 2010년 51.2%
- (대학 교육의 목적) 학생이 대학교육을 원하는 이유 1위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 (가장 선호하는 직장)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은 공적기관이 42.4%(국가기관 23.9%, 공기업·공사 18.5%)
- (고용형태별 구조)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비율 2003년 7:3 → 2013년 8:2
- (산업별 구조) 2013년 취업자 중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90.6%, 제조업 9.3%
- (직업별 구조) 2013년 전체 취업자 중 관리직·전문직·사무직 취업자가 49.9%로 절반 차지
- (학력별 구조) 전체 취업자 중 대졸이상 비중 2003년 39.4%→2013년 52.1%, 2013년 처음으로 절반 넘어
- (주당 평균취업시간) 취업자 주당 평균 취업시간 2003년 49.2시간 → 2013년 43.2시간

■ (2013년 직장인 자화상)

- (고용 안정성) 만19세이상 취업자 65.1% “평소 직장을 잃거나 바뀌야 한다는 불안감 느껴”
 - ▶ 직장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남성(67.2%)이 여성(62.4%)보다 고용불안 더 느껴
- (일·가정 우선도) 일과 가정생활 중 58.7%는 일 우선, 10.0%는 가정생활 우선, 31.3%는 둘다 비슷
 - ▶ 가정생활보다 일이 우선이라는 견해 역시 남성(66.4%)이 여성(48.3%)보다 더 뚜렷
- (직업 선택요인)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수입(35.3%), 안정성(25.9%) 순
- (일자리 만족도)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률 27.5%, 불만족 22.9%, 보통 49.6%
 - ▶ 근로여건 중 만족률은 인간관계(40.2%)에서 가장 높고, 불만족률은 임금(41.1%)에서 가장 높음

I. 통계로 본 『노동구조의 변화』

1.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10년 새 32만6천명(6.5%) 증가 : 2003년 498만1천명 → 2013년 530만7천명
 → 남성 5만5천명 증가(2,921천명→2,976천명), 여성 27만1천명 증가(206만명→2,331천명)
 경제활동참가율 : 2003년 62.1%(男 74.8%, 女 50.0%) → 2013년 62.3%(男 72.7%, 女 52.6%)
 고용률 : 2003년 59.2%(男 71.2%, 女 47.9%) → 2013년 59.8%(男 69.7%, 女 50.7%)

- 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했거나 일은 하지 않았지만, 구직활동을 한 경우를 경제활동참가(취업+실업)라고 하는데, 2013년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는 530만7천명으로 2003년 498만1천명에서 10년새 32만6천명(6.5%) 증가함.
-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03년 206만명에서 233만1천명으로 10년 새 27만1천명(13.2%) 증가하였으며, 남성은 같은 기간 292만1천명에서 297만6천명으로 5만5천명(1.9%) 증가함.
- 15세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62.3%로 10년 전인 2003년(62.1%)과 비슷한 수준임.
- 2013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72.7%로 여성(52.6%)보다 20.1%p 높음.
- 또한,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2013년 현재 59.8%로 2003년 59.2%, 2005년 60.3%에서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여전히 70%를 넘지 못하는 수준임.
- 남성 고용률은 2013년 69.7%로 여성(50.7%)보다 19.0%p 높음.

※ 2012년 주요국의 15~64세(OECD비교기준) 고용률 : 한국(64.2%), 미국(67.1%), 일본(70.6%), 호주(72.3%)

<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

(단위:천명, %, %p)

구 분	경제활동인구(천명)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			
	전체	성 별		연 령 별			학 령 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5~29세	30~54세	55세이상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2000년	4,917	2,908	2,009	1,408	2,944	565	1,112	2,226	1,579	61.3	74.6	48.8	58.2 (60.9)	70.4	46.7	
2003년(A)	4,981	2,921	2,060	1,281	3,094	606	898	2,125	1,959	62.1	74.8	50.0	59.2 (62.6)	71.2	47.9	
2005년	5,135	2,969	2,167	1,235	3,213	686	902	2,179	2,055	63.3	75.3	52.0	60.3 (64.3)	71.5	49.6	
2010년	5,180	2,971	2,208	1,033	3,283	864	742	2,037	2,401	61.8	73.0	51.2	58.9 (63.4)	69.1	49.2	
2011년	5,252	2,999	2,252	1,045	3,292	915	715	2,027	2,510	62.5	73.7	52.0	59.7 (64.6)	70.0	50.0	
2012년	5,258	2,972	2,286	986	3,283	991	712	1,961	2,586	62.3	73.0	52.3	59.7 (64.6)	69.6	50.4	
2013년(B)	5,307	2,976	2,331	964	3,295	1,048	669	1,880	2,758	62.3	72.7	52.6	59.8 (64.9)	69.7	50.7	
10년새	증 감	326	55	271	-317	201	442	-229	-245	799	0.2	-2.1	2.6	0.6	-1.5	2.8
(A, B)	증감율	6.5	1.9	13.2	-24.7	6.5	72.9	-25.5	-11.5	40.8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주) 구직기간 4주기준임.
 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100(%)
 - 고용률 : (취업자 ÷ 15세이상인구) × 100(%) , ※ ()는 15~64세(OECD비교기준) 고용률

2.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10년 새 16만7천명(5.5%) 증가 : 2003년 304만6천명 → 2013년 321만3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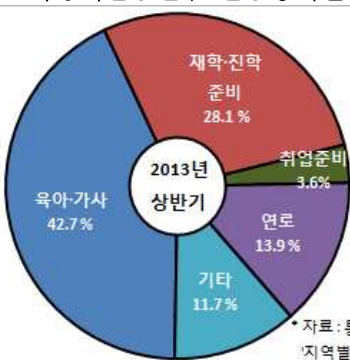
→ 남성 13만명 증가(986천명→1,116천명), 여성 3만7천명 증가(206만명→2,097천명)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인구 10년 새 22만8천명 증가하여 2013년 80만2천명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졸이상 비중 2013년 25.0%, 비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 및 가사 42.7%, 재학 및 진학준비 28.1%, 연로 13.9%, 취업준비 3.6%

- 만 15세이상 인구 중에서 일자리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가사·육아, 학생, 연로,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그냥 쉬 사람' 등이 포함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003년 304만6천명에서 2013년 321만3천명으로 10년 새 16만7천명(5.5%)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03년 98만6천명에서 2013년 111만6천명으로 10년 새 13만명 (13.2%) 증가, 여성은 2003년 206만명에서 2013년 209만7천명으로 3만7천명(1.8%)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졸이상 학력을 가진 인구는 2013년 80만2천명으로 2003년 57만4천명에서 10년새 22만8천명(39.7%) 증가했으며, 통계작성이래 처음으로 80만명을 넘어섰음.
 - 이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대졸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18.8%에서 2013년 25.0%로 증가하여 비경제활동 인구 중 대졸이상 학력이 4명중 1명꼴임.
 - 이런 증가에는 고학력화의 영향과 고학력 은퇴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배경으로 보임.
- 또한, 2013년 상반기 통계(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로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별 분포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42.7%는 육아 및 가사, 28.1%는 재학 및 진학준비, 13.9%는 연로 등의 순이며, 3.6%가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천명, %)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별 분포>		
구분	계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남성	여성	15~29세	30~54세	55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2000년	3,097	991	2,107	1,330	980	787	1,273	1,304	521	
2003년(A)	3,046	986	2,060	1,148	989	909	1,228	1,244	574	
2005년	2,980	976	2,004	1,048	959	973	1,210	1,164	607	
2010년	3,205	1,098	2,107	1,134	954	1,117	1,229	1,226	751	
2011년	3,147	1,070	2,078	1,080	917	1,150	1,233	1,194	721	
2012년	3,184	1,101	2,083	1,073	909	1,202	1,184	1,268	732	
2013년(B)	3,213	1,116	2,097	1,069	887	1,259	1,170	1,242	802	
10년새	증감	167	130	37	-79	-102	350	-58	-2	228
(A B)	증감율	5.5	13.2	1.8	-6.9	-10.3	38.5	-4.7	-0.2	39.7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구직기간 4주 기준

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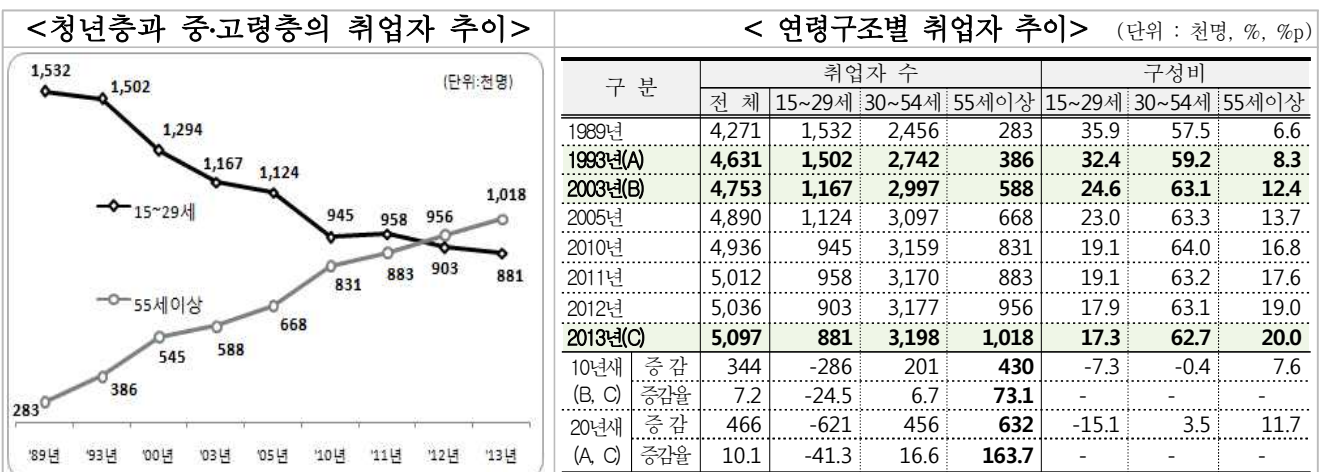
-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자와 실업자가 아닌 자로 취업자가 아닌 자 중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의사는 있으나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자로 가사·육아, 학생, 연로,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그냥 쉬 사람 등이 포함됨
- 활동상태 : 재학 및 진학준비는 정규교육기관 통학(조사대상주간에 공·사립학교 등에 다님), 입시학원 통학, 진학준비 포함.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취업을 위하여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다님), 취업준비(혼자서 집이나 도서관 등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포함. 기타는 심신장애, 군입대대기, 결혼준비, 쉬었음 등을 말함.

3. 취업자 연령 구조

55세이상 취업자 2012년부터 15~29세 청년층 추월하기 시작, 2013년 처음으로 100만명 넘어서
 → 55세이상 취업자 10년 새 43만명 증가 : 2003년 58만8천명 → 2013년 101만8천명
 → 15~29세 취업자 10년 새 28만6천명 감소 : 2003년 116만7천명 → 2013년 88만1천명
 2013년 전체 취업자 5명 중 1명이 55세이상 취업자 전체 취업자 중 55세이상 취업자 20.0% 차지

□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수를 보면, 청년층 취업자는 줄어드는 반면, 55세이상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15~29세 청년층 취업자를 추월하였으며, 2013년에는 통계작성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취업자 중 20%를 차지함.

- 통계에 따르면, 55세이상 연령층은 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
 - 55세이상 취업자 수는 2003년 58만8천명에서 2013년 101만8천명으로 지난 10년 새 43만명(73.1%) 증가했으며, 전체 취업자에서 55세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12.4%에서 2013년에는 20.0%로 전체 취업자 5명 중 1명이 55세이상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핵심 노동계층인 30~54세 취업자 수는 2003년 299만7천명에서 2013년 319만8천명으로 10년 새 20만1천명(6.7%) 증가했으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1%에서 62.7%로 소폭 감소함.
 -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03년 116만7천명에서 2013년 88만1천명으로 10년 새 28만6천명(-24.5%) 줄어들면서 취업자 통계작성이래 처음으로 80만명대로 하락하였으며,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2003년 24.6%에서 2013년 17.3%로 감소함.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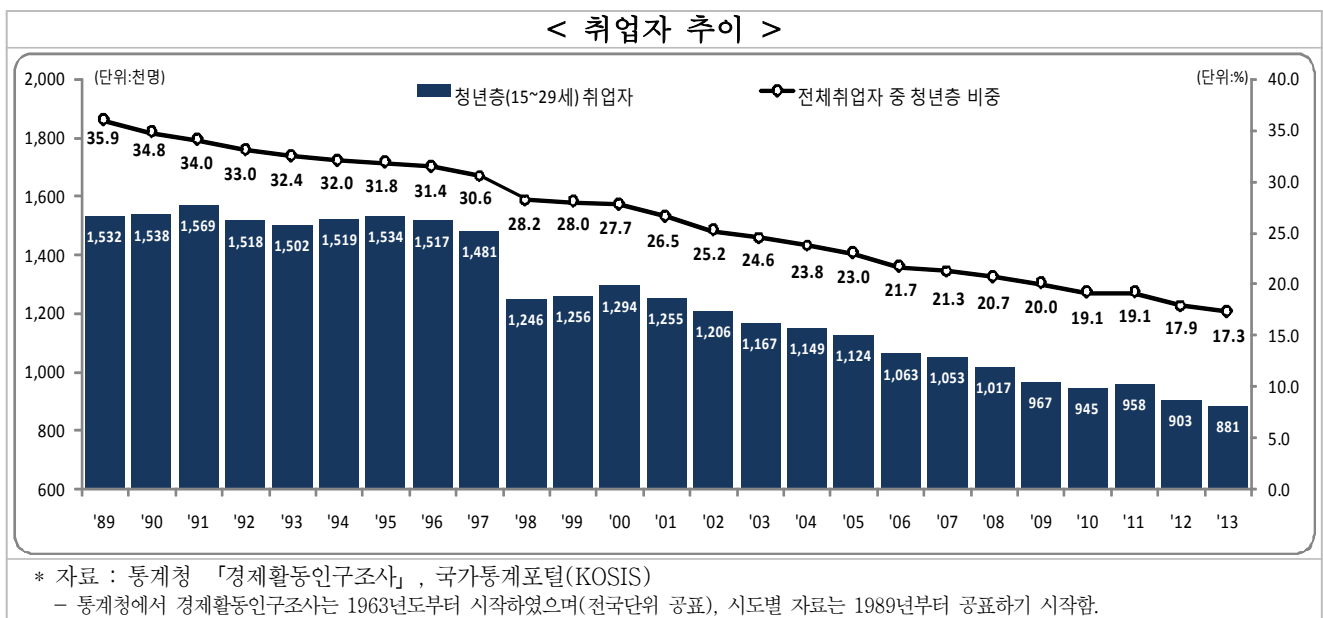
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취업자 : 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나. 동일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다.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4. 청년층(15~29세) 취업구조

15~29세 취업자 2009년(967천명)부터 100만명 아래로 떨어져, 2013년에는 88만1천명
 20~24세 고용률 10년 새 10.1%p 하락하여 2013년 42.1%, 청년층 취업자 중 가장 큰 감소
 15~29세 중 학력상태가 재학 중인 인구가 절반 넘어 : 1990년 33.3% → 2010년 51.2%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으로는 공적기관이 42.4%(국가기관 23.9%, 공기업·공사 18.5%)

□ (청년층 취업자) 15~29세 취업자 2009년(967천명)부터 100만명 아래로 떨어져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청년층은 15~29세 사이 연령층의 인구를 말하는데,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989년 153만2천명, 1991년 156만9천명에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2009년 96만7천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2013년에는 88만1천명으로 관련 통계작성이래 최저 수준임.
- 또한,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15~29세) 비중은 1989년 35.9%에서 전반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1998년 28.2%로 처음으로 20%대에 들어섰으며, 2010년 19.1%, 2012년 17.9%에 이어 2013년에는 17.3%까지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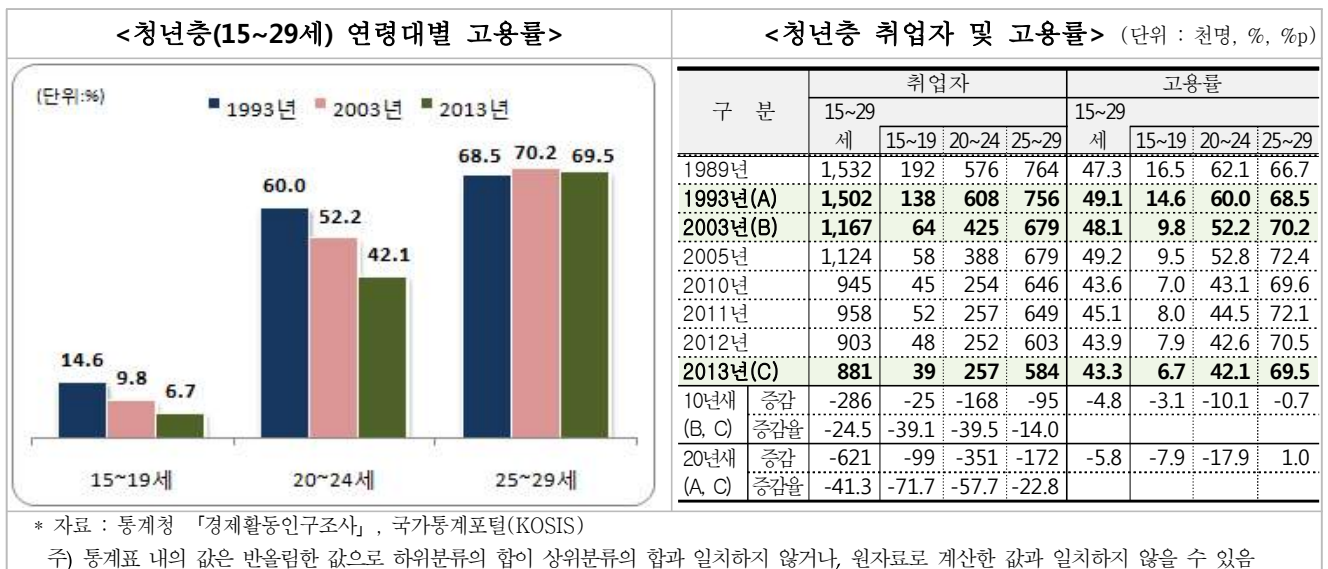


□ (20대~24세 취업자) 20대 초반 고용률 10년 새 10.1%p 하락, 청년층 취업자 중 가장 큰 감소

- 15~29세 청년층을 10대 후반(15~19세), 20대 초반(20~24세), 20대 후반(25~29세)으로 연령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특히 20대 초반(20~24세)에서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15~29세 취업자가 10년 동안 28만6천명 감소하였으며, 이중 20~24세 취업자 수는 2003년 42만5천명에서 2013년 25만7천명으로 10년 새 16만8천명 줄어, 15~29세

취업자 감소 중 58.7%(28만6천명 중 16만8천명)에 해당함.

- 또한, 20대 초반 고용률 감소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1993년에는 20대 초반 인구 중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률이 60.0%였으나, 2003년 52.2%로 줄었으며, 2013년엔 42.1%로 줄어 지난 10년 새 20대 초반 고용률이 10.1%p나 감소함. 15~19세 고용률은 9.8%→6.7%, 25~29세 고용률은 70%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하는 한편, 중고령자의 취업은 증가하는 등 취업 현장에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학업기간이 길어지고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한 취업준비기간 연장 등으로 청년층이 노동시장(경제활동)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영향을 받고 있음.

- (청년층 인구) 15~29세 인구 10년새 49만2천명 감소, 55세이상은 87만3천명 증가
 - 1980년대 중반이후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의 영향으로 15~29세 인구는 2003년 256만5천명에서 2013년 207만3천명으로 지난 10년 새 49만2천명(19.2%) 감소함.
 - ※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1명당 평균출생아) : '70년 3.05명→'82년 2.05명→'02년 1.00명→'12년 1.06명
 - 반면, 55세이상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부터 15~29세 인구보다 많아졌으며, 지난 10년새 87만3천명(56.1%) 증가하여 2013년 242만9천명임.
 - ※ 기대수명(기대수명은 해당연도에 태어난 신생아의 평균 생존연수로서 평균수명임) : 2000년 78.8세(남성 75.8세, 여성 81.7세) → 2011년 82.7세(남성 79.3세, 여성 85.6세)

<15~29세 및 55세이상 인구(주민등록) 추이>		<청년층 인구(내국인 인구)> (단위 : 천명,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전 체 인 구</th> <th colspan="5">주민등록인구(내국인)</th> <th rowspan="2">30~54세</th> <th rowspan="2">55세이상</th> </tr> <tr> <th>0~14세</th> <th colspan="3">15~29 세 (청년층)</th> <th>20~24</th> <th>25~29</th> </tr> </thead> <tbody> <tr> <td>1993년(A)</td> <td>10,889</td> <td>2,467</td> <td>3,317</td> <td>936</td> <td>1,195</td> <td>1,187</td> <td>4,040</td> <td>1,065</td> </tr> <tr> <td>2003년(B)</td> <td>10,174</td> <td>1,787</td> <td>2,565</td> <td>651</td> <td>925</td> <td>989</td> <td>4,267</td> <td>1,556</td> </tr> <tr> <td>2010년</td> <td>10,313</td> <td>1,435</td> <td>2,257</td> <td>673</td> <td>665</td> <td>918</td> <td>4,471</td> <td>2,150</td> </tr> <tr> <td>2011년</td> <td>10,250</td> <td>1,383</td> <td>2,187</td> <td>657</td> <td>670</td> <td>859</td> <td>4,444</td> <td>2,235</td> </tr> <tr> <td>2012년</td> <td>10,195</td> <td>1,337</td> <td>2,125</td> <td>636</td> <td>684</td> <td>805</td> <td>4,401</td> <td>2,333</td> </tr> <tr> <td>2013년(C)</td> <td>10,144</td> <td>1,291</td> <td>2,073</td> <td>613</td> <td>690</td> <td>769</td> <td>4,350</td> <td>2,429</td> </tr> <tr> <td>10년새 증감</td> <td>-30</td> <td>-496</td> <td>-492</td> <td>-38</td> <td>-234</td> <td>-220</td> <td>84</td> <td>873</td> </tr> <tr> <td>(B, C) 증감률</td> <td>-0.3</td> <td>-27.7</td> <td>-19.2</td> <td>-5.9</td> <td>-25.3</td> <td>-22.2</td> <td>2.0</td> <td>56.1</td> </tr> <tr> <td>20년새 증감</td> <td>-746</td> <td>-1,175</td> <td>-1,244</td> <td>-323</td> <td>-505</td> <td>-417</td> <td>310</td> <td>1,364</td> </tr> <tr> <td>(A, C) 증감률</td> <td>-6.8</td> <td>-47.6</td> <td>-37.5</td> <td>-34.5</td> <td>-42.2</td> <td>-35.2</td> <td>7.7</td> <td>128.0</td> </tr> </tbody> </table>								구 분	전 체 인 구	주민등록인구(내국인)					30~54세	55세이상	0~14세	15~29 세 (청년층)			20~24	25~29	1993년(A)	10,889	2,467	3,317	936	1,195	1,187	4,040	1,065	2003년(B)	10,174	1,787	2,565	651	925	989	4,267	1,556	2010년	10,313	1,435	2,257	673	665	918	4,471	2,150	2011년	10,250	1,383	2,187	657	670	859	4,444	2,235	2012년	10,195	1,337	2,125	636	684	805	4,401	2,333	2013년(C)	10,144	1,291	2,073	613	690	769	4,350	2,429	10년새 증감	-30	-496	-492	-38	-234	-220	84	873	(B, C) 증감률	-0.3	-27.7	-19.2	-5.9	-25.3	-22.2	2.0	56.1	20년새 증감	-746	-1,175	-1,244	-323	-505	-417	310	1,364	(A, C) 증감률	-6.8	-47.6	-37.5	-34.5	-42.2	-35.2	7.7	128.0
구 분	전 체 인 구	주민등록인구(내국인)					30~54세	55세이상																																																																																																										
		0~14세	15~29 세 (청년층)			20~24			25~29																																																																																																									
1993년(A)	10,889	2,467	3,317	936	1,195	1,187	4,040	1,065																																																																																																										
2003년(B)	10,174	1,787	2,565	651	925	989	4,267	1,556																																																																																																										
2010년	10,313	1,435	2,257	673	665	918	4,471	2,150																																																																																																										
2011년	10,250	1,383	2,187	657	670	859	4,444	2,235																																																																																																										
2012년	10,195	1,337	2,125	636	684	805	4,401	2,333																																																																																																										
2013년(C)	10,144	1,291	2,073	613	690	769	4,350	2,429																																																																																																										
10년새 증감	-30	-496	-492	-38	-234	-220	84	873																																																																																																										
(B, C) 증감률	-0.3	-27.7	-19.2	-5.9	-25.3	-22.2	2.0	56.1																																																																																																										
20년새 증감	-746	-1,175	-1,244	-323	-505	-417	310	1,364																																																																																																										
(A, C) 증감률	-6.8	-47.6	-37.5	-34.5	-42.2	-35.2	7.7	128.0																																																																																																										
<p>*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국가통계포털(KOSIS)</p> <p>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p> <p>- 인구관련 통계는 추계인구, 총조사인구, 주민등록인구가 있고, 통계의 포괄범위,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이용에 유의해야함.</p> <p>- 본자료에서는 주민등록인구(내국인)를 활용하였으며, 2010년말 기준부터 거주 불명자를 주민등록인구에 포함하여 집계함</p>																																																																																																																		

- (청년층 학력상태) 청년층 인구 중 중·고등교육에 재학 중인 상태가 절반이상을 차지
 - 청년층 노동시장은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학령기에 있는 관계로 학교교육과 노동 시장 진출입이 겹치는 기간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음.
 - 교육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15~29세 청년층 중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에 재학 중인 인구가 1990년에는 33.3%였으나, 2000년 45.0%, 2010년 51.2%로 증가하여 1990년도에는 10명 중 3명의 청년이 재학(휴학) 상태에 있었으나, 2010년에는 10명 중 5명이 재학(휴학) 중인 것으로 나타남.
 - ※ 대학진학률(등록자 기준) : 1990년 27.1% → 2013년 70.7%
 - 15~29세 청년층의 연령별로 학력상태를 살펴보면, 20대 초반 인구의 재학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15~19세 인구 중 재학(휴학) 상태는 1990년 75.1%에서 2010년 89.8%로 증가, 20~24세 인구 중 재학 상태는 1990년 22.8%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62.8%까지 증가하였으며, 25~29세 인구 중 재학 상태는 4.2%→15.1%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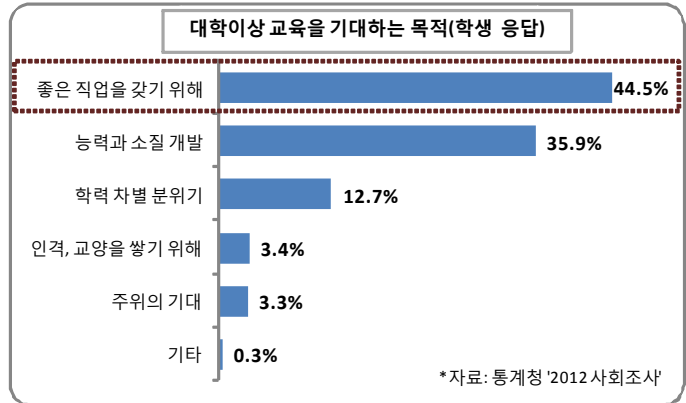
<대학진학률(전국)>		<서울 15~29세 청년층 학력상태> (단위 :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 분</th> <th colspan="16">인구주택총조사 자료(15~29세 내국인)</th> </tr> <tr> <th colspan="4">청년층 인구 (15~29세 계)</th> <th colspan="4">15~19세</th> <th colspan="4">20~24세</th> <th colspan="4">25~29세</th> </tr> <tr> <th>계</th> <th>재학</th> <th>졸업</th> <th>기타</th> <th>계</th> <th>재학</th> <th>졸업</th> <th>기타</th> <th>계</th> <th>재학</th> <th>졸업</th> <th>기타</th> <th>계</th> <th>재학</th> <th>졸업</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1990년</td> <td>100.0</td> <td>33.3</td> <td>66.5</td> <td>0.2</td> <td>100.0</td> <td>75.1</td> <td>24.8</td> <td>0.2</td> <td>100.0</td> <td>22.8</td> <td>77.0</td> <td>0.1</td> <td>100.0</td> <td>4.2</td> <td>95.6</td> <td>0.2</td> </tr> <tr> <td>2000년</td> <td>100.0</td> <td>45.0</td> <td>54.9</td> <td>0.1</td> <td>100.0</td> <td>84.9</td> <td>15.1</td> <td>0.1</td> <td>100.0</td> <td>50.0</td> <td>49.9</td> <td>0.1</td> <td>100.0</td> <td>11.2</td> <td>88.7</td> <td>0.1</td> </tr> <tr> <td>2010년</td> <td>100.0</td> <td>51.2</td> <td>48.7</td> <td>0.1</td> <td>100.0</td> <td>89.8</td> <td>10.1</td> <td>0.0</td> <td>100.0</td> <td>62.8</td> <td>37.2</td> <td>0.1</td> <td>100.0</td> <td>15.1</td> <td>84.8</td> <td>0.1</td> </tr> </tbody> </table>																구 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15~29세 내국인)																청년층 인구 (15~29세 계)				15~19세				20~24세				25~29세				계	재학	졸업	기타	계	재학	졸업	기타	계	재학	졸업	기타	계	재학	졸업	기타	1990년	100.0	33.3	66.5	0.2	100.0	75.1	24.8	0.2	100.0	22.8	77.0	0.1	100.0	4.2	95.6	0.2	2000년	100.0	45.0	54.9	0.1	100.0	84.9	15.1	0.1	100.0	50.0	49.9	0.1	100.0	11.2	88.7	0.1	2010년	100.0	51.2	48.7	0.1	100.0	89.8	10.1	0.0	100.0	62.8	37.2	0.1	100.0	15.1	84.8	0.1
구 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15~29세 내국인)																																																																																																																				
	청년층 인구 (15~29세 계)				15~19세				20~24세				25~29세																																																																																																								
	계	재학	졸업	기타	계	재학	졸업	기타	계	재학	졸업	기타	계	재학	졸업	기타																																																																																																					
1990년	100.0	33.3	66.5	0.2	100.0	75.1	24.8	0.2	100.0	22.8	77.0	0.1	100.0	4.2	95.6	0.2																																																																																																					
2000년	100.0	45.0	54.9	0.1	100.0	84.9	15.1	0.1	100.0	50.0	49.9	0.1	100.0	11.2	88.7	0.1																																																																																																					
2010년	100.0	51.2	48.7	0.1	100.0	89.8	10.1	0.0	100.0	62.8	37.2	0.1	100.0	15.1	84.8	0.1																																																																																																					
<p>*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보도자료」 교육통계서비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내국인)」 국가통계포털</p> <p>- 대학진학률 : 당해연도 졸업자 중 대학등록자/당해연도 졸업자 × 100, 대학등록자 기준 대학진학률임</p> <p>- 재학에는 휴학 포함, 졸업에는 중퇴, 수료 포함됨(학업기간을 마쳤다는 의미).</p> <p>- 기타는 학력 미상이나 미취학 포함</p>																																																																																																																					

□ (학생의 대학교육 목적) 학생이 대학교육을 원하는 이유 1위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 2012년 15세이상 서울거주 학생 중 4년제 대학교이상의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91.6%(이중 32.4%는 석사이상 원해)로 나타남.

○ 이처럼 학생들이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된 목적으로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44.5%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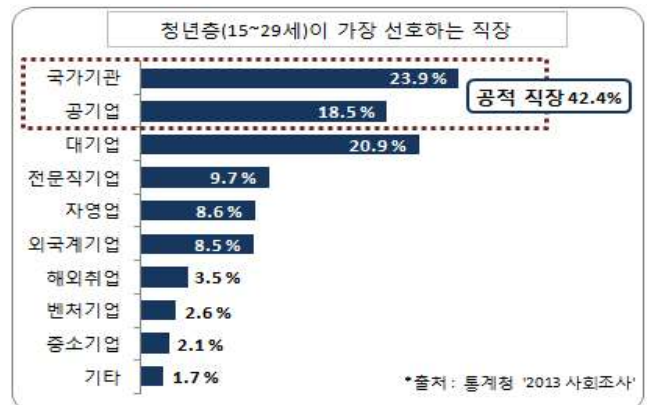
○ 이어서, 자신의 능력과 소질 개발 (35.9%), 학력차별 분위기(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 15~29세 청년 10명 중 4명이상이 “공적 일자리 원해”

○ 2013년 서울 15~29세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으로는 공적기관이 42.4% (국가기관 23.9%,공기업·공사 18.5%)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외에 대기업 20.9%, 전문직기업 9.7%, 자영업 8.6%, 외국계기업 8.5%, 해외 취업 3.5%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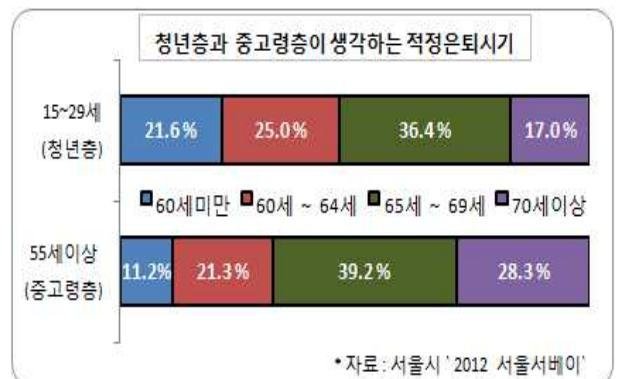


□ (청년층이 생각하는 적정은퇴 시기) “65~69세 > 60~64세 > 60세미만 > 70세이상 순”

○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청년층이 생각하는 적정 은퇴시기는 중·고령층이 생각하는 시기보다 다소 빠른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통계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이 생각하는 적정은퇴시기는 65~69세(36.4%), 60~64세(25.0%), 60세미만(21.6%), 70세이상(17.0%) 순으로 나타난 반면,

○ 55세이상 연령층은 65~69세(39.2%), 70세이상(28.3%), 60~64세(21.3%), 60세미만(11.2%)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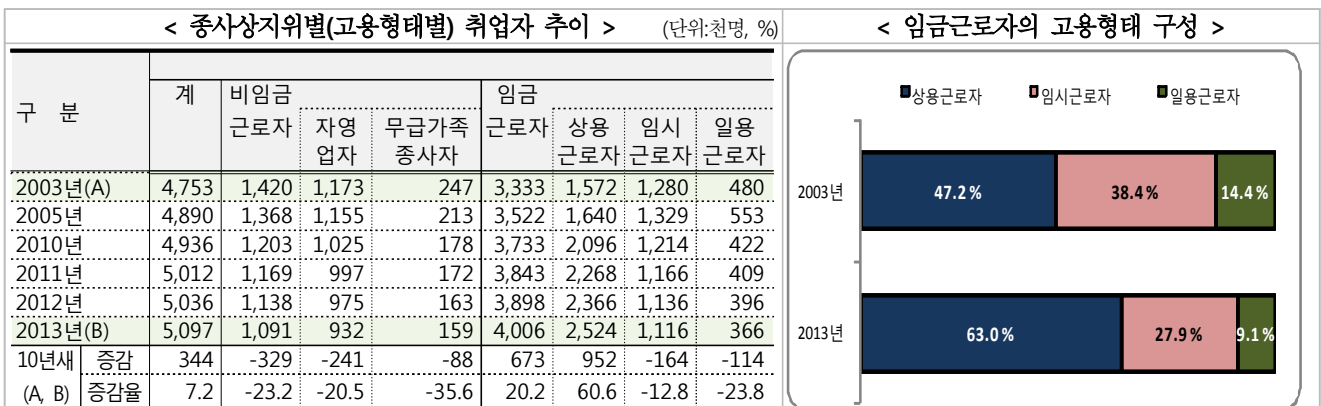


5. 종사상지위별(고용형태별) 취업자 구조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비율 → 2003년 7 : 3 → 2013년 8 : 2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10년 새 95만2천명 증가, 임시 및 일용직은 27만8천명 감소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절반 넘어, 2003년 47.2%→2013년 63.0%

- 서울 취업자의 고용형태는 상용근로자 중심의 취업자는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감소하고 있음.
-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는 비임금근로자는 2003년 142만명에서 2013년 109만1천명으로 10년 새 32만9천명(23.2%) 감소하였으며,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03년 29.9%에서 2013년 21.4%로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10년새 24만1천명 감소, 무급가족 종사자는 8만8천명 감소.
- 또한,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2003년 333만3천명에서 2013년 400만6천명으로 10년 새 67만3천명(20.2%) 증가하였으며,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2003년 70.1%에서 2013년 78.6%로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10년 새 95만2천명 증가했으며,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는 27만8천명 감소하여 임금근로자 증가는 상용근로자의 증가에 기인함.
 - 임금근로자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2003년에는 상용근로자가 47.2%, 임시 및 일용직이 52.8%를 차지했으나, 2013년 상용근로자가 63.0%로 크게 증가했으며, 임시 및 일용직은 37.0%로 감소함.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종사상지위 :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하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
- 임금근로자 :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결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고용계약미결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결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고용계약미결정자는 일정한 사업(원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등
- 비임금근로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
 - 무급가족종사자 :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주간에 18시간이상 일한 사람

6. 산업별 취업자 구조

2013년 취업자 중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90.6%, 제조업은 9.3% 차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8년새 11.5%(47만5천명) 증가하여 2013년 461만8천명
 → 이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가장 많이 늘어, 8년 새 31.9%(50만4천명) 증가
 제조업 취업자는 8년 새 26만7천명(36.0%) 감소하여 2013년 47만4천명

- 산업별 취업자의 분포는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는 2005년 414만3천명에서 2013년 461만8천명으로 47만5천명(11.5%) 증가한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같은기간 74만1천명에서 47만4천명으로 26만7천명(36.0%) 감소함.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중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와 건설업 취업자는 감소, 그 외 사업 및 개인·공공서비스와 전기·운수·통신·금융 취업자는 증가함.
 - 이 중 사업 및 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가 8년 새 50만4천명(31.9%)늘어 가장 많이 증가함.
- 비중으로 보면, 2013년 전체 취업자 중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가 90.6%(4,618천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조업 취업자 9.3%(474천명), 농업 및 광업 0.1%(6천명) 순임.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는 2005년 84.7%에서 2013년 90.6%로 증가하였으며, 이중에서도 사업 및 개인·공공서비스 비중이 2005년 32.3%에서 2013년 40.9%로 크게 증가함.
 - 제조업 취업자는 2005년 15.2%에서 2013년 9.3%로 감소함.

구분	전체 취업자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기타 (농업, 광업 등)		
			건설업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통신·금융			
취업자	2005년(A)	4,890	741	4,143	418	1,424	1,581	720	6
	2010년	4,936	532	4,397	374	1,340	1,894	790	7
	2011년	5,012	517	4,489	378	1,320	1,966	824	7
	2012년	5,036	506	4,523	353	1,319	2,026	826	7
	2013년(B)	5,097	474	4,618	331	1,331	2,085	871	6
구성비	2005년	100.0	15.2	84.7	8.5	29.1	32.3	14.7	0.1
	2013년	100.0	9.3	90.6	6.5	26.1	40.9	17.1	0.1
8년새 (A, B)	증감	207	-267	475	-87	-93	504	151	0
	증감율	4.2	-36.0	11.5	-20.8	-6.5	31.9	21.0	0.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2008년 개정) 기준
 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산업 :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을 의미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 교육서비스업(P)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 가가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 국제 및 외국기관(U)
 * 전기·운수·통신·금융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 운수업(H)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 금융 및 보험업(K)

7. 직업별 취업자 구조

2013년 전체 취업자 중 관리직·전문직·사무직 취업자(254만8천명)가 49.9%로 절반 차지
→ 직업별 분포: 전문직(26.9%), 사무직(20.8%), 판매직(13.5%), 단순노무직(11.6%) 순
→ 8년 새 전문직(31.9%) 및 사무직(30.1%) ↑, 판매직(-11.9%) 및 기능직(-31.2%)은 ↓

-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는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이 전체 취업자 중 49.9%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2013년 현재 취업자의 직업은 관리직 2.2%(113천명), 전문직 26.9%(1,373천명), 사무직 20.8%(1,062천명), 서비스직 10.3%(526천명), 판매직 13.5%(689천명), 기능직 8.2%(417천명), 기계직 6.3%(323천명), 단순노무직 11.6%(589천명) 등으로 분포됨.
 - 2005년과 비교해서 보면, 지난 8년 동안 취업자가 증가한 직업은 전문직 31.9%(332천명), 사무직 30.1%(246천명), 장치 및 기계조작 관련직 4.9%(15천명) 각각 증가한 반면, 관리직 29.4%(47천명), 서비스직 10.4%(61천명), 판매직 11.9%(93천명), 기능원 및 관련직 31.2%(18만9천명) 각각 감소함.
 -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전문가 및 사무직군 증가, 생산의 고도화와 기계화로 인하여 블루칼라 직업 중에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줄어드는 반면, 장치 및 기계조작 관련종사자는 소폭 늘어나고 있음.

<취업자 직업별 구성>		<직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천명, %)																																																																																																																									
관리직	2.2%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관리자</th> <th>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th> <th>사무 종사자</th> <th>서비스 종사자</th> <th>판매 종사자</th> <th>농림어업 속련 종사자</th> <th>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th> <th>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th> <th>단순노무 종사자</th> </tr> </thead> <tbody> <tr> <td>취업자</td> <td>2005년(A)</td> <td>4,890</td> <td>160</td> <td>1,041</td> <td>816</td> <td>587</td> <td>782</td> <td>4</td> <td>606</td> <td>308</td> <td>587</td> </tr> <tr> <td></td> <td>2010년</td> <td>4,936</td> <td>175</td> <td>1,251</td> <td>865</td> <td>549</td> <td>701</td> <td>8</td> <td>467</td> <td>306</td> <td>614</td> </tr> <tr> <td></td> <td>2011년</td> <td>5,012</td> <td>143</td> <td>1,292</td> <td>975</td> <td>549</td> <td>662</td> <td>9</td> <td>477</td> <td>316</td> <td>589</td> </tr> <tr> <td></td> <td>2012년</td> <td>5,036</td> <td>122</td> <td>1,284</td> <td>1,038</td> <td>555</td> <td>654</td> <td>11</td> <td>459</td> <td>322</td> <td>592</td> </tr> <tr> <td></td> <td>2013년(B)</td> <td>5,097</td> <td>113</td> <td>1,373</td> <td>1,062</td> <td>526</td> <td>689</td> <td>6</td> <td>417</td> <td>323</td> <td>589</td> </tr> <tr> <td>구성비</td> <td>2005년</td> <td>100.0</td> <td>3.3</td> <td>21.3</td> <td>16.7</td> <td>12.0</td> <td>16.0</td> <td>0.1</td> <td>12.4</td> <td>6.3</td> <td>12.0</td> </tr> <tr> <td></td> <td>2013년</td> <td>100.0</td> <td>2.2</td> <td>26.9</td> <td>20.8</td> <td>10.3</td> <td>13.5</td> <td>0.1</td> <td>8.2</td> <td>6.3</td> <td>11.6</td> </tr> <tr> <td>8년새</td> <td>증감</td> <td>207</td> <td>-47</td> <td>332</td> <td>246</td> <td>-61</td> <td>-93</td> <td>2</td> <td>-189</td> <td>15</td> <td>2</td> </tr> <tr> <td>(A, B)</td> <td>증감율</td> <td>4.2</td> <td>-29.4</td> <td>31.9</td> <td>30.1</td> <td>-10.4</td> <td>-11.9</td> <td>50.0</td> <td>-31.2</td> <td>4.9</td> <td>0.3</td> </tr> </tbody> </table>	구분	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속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취업자	2005년(A)	4,890	160	1,041	816	587	782	4	606	308	587		2010년	4,936	175	1,251	865	549	701	8	467	306	614		2011년	5,012	143	1,292	975	549	662	9	477	316	589		2012년	5,036	122	1,284	1,038	555	654	11	459	322	592		2013년(B)	5,097	113	1,373	1,062	526	689	6	417	323	589	구성비	2005년	100.0	3.3	21.3	16.7	12.0	16.0	0.1	12.4	6.3	12.0		2013년	100.0	2.2	26.9	20.8	10.3	13.5	0.1	8.2	6.3	11.6	8년새	증감	207	-47	332	246	-61	-93	2	-189	15	2	(A, B)	증감율	4.2	-29.4	31.9	30.1	-10.4	-11.9	50.0	-31.2	4.9	0.3	전문직	26.9%
구분	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속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취업자	2005년(A)		4,890	160	1,041	816	587	782	4	606	308	587																																																																																																															
	2010년		4,936	175	1,251	865	549	701	8	467	306	614																																																																																																															
	2011년		5,012	143	1,292	975	549	662	9	477	316	589																																																																																																															
	2012년		5,036	122	1,284	1,038	555	654	11	459	322	592																																																																																																															
	2013년(B)		5,097	113	1,373	1,062	526	689	6	417	323	589																																																																																																															
구성비	2005년		100.0	3.3	21.3	16.7	12.0	16.0	0.1	12.4	6.3	12.0																																																																																																															
	2013년		100.0	2.2	26.9	20.8	10.3	13.5	0.1	8.2	6.3	11.6																																																																																																															
8년새	증감		207	-47	332	246	-61	-93	2	-189	15	2																																																																																																															
(A, B)	증감율	4.2	-29.4	31.9	30.1	-10.4	-11.9	50.0	-31.2	4.9	0.3																																																																																																																
사무직	20.8%	서비스직	10.3%																																																																																																																								
서비스직	10.3%	판매직	13.5%																																																																																																																								
판매직	13.5%	기능직	8.2%																																																																																																																								
기능직	8.2%	기계직	6.3%																																																																																																																								
기계직	6.3%	단순노무직	11.6%																																																																																																																								
단순노무직	11.6%	농림어업직	0.1%																																																																																																																								
농림어업직	0.1%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주) 한국표준직업분류 6차 개정(2007년 개정) 기준, 직업이란 조사대상 구간 중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의 기능별 종류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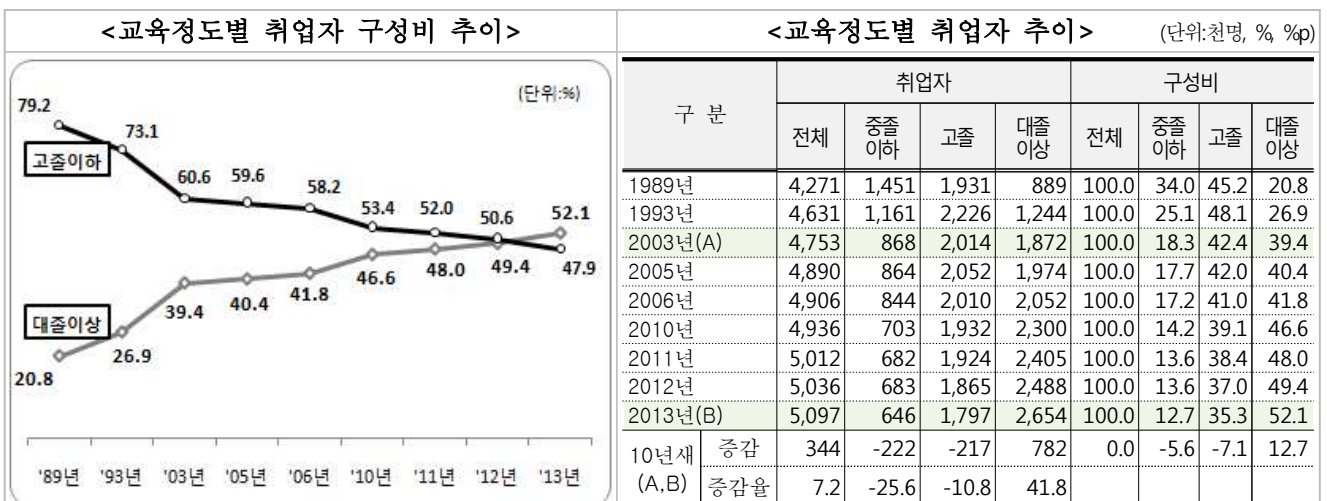
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리자 : 국회의원, 기획관리자, 대학총장, 부서관리자, 회원단체관리자 등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과학 및 정보통신 전문가, 교육전문가, 법률 및 행정전문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등, 예) 생명과학연구원, 시스템개발자, 건축가, 의사, 교수, 변호사, 관세사, 작가 등
- 사무 종사자 : 경영 및 회계관련, 금융, 보험, 법률관련 사무직 등 예) 행정사무원, 보험심사원, 특허사무원, 모니터요원 등
- 서비스 종사자 : 경찰소방보안 관련 서비스직, 이비용·예약·료보조 서비스직 등, 예) 경호원, 간병인, 여행안내원, 조리사 등
- 판매 종사자 : 영업직, 매장 판매직, 방문노점종신 판매 관련직 등, 예) 보험설계사, 매장계산원, 텔레마케터 등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제빵원, 재단사, 약기수리원, 용접원, 자동차정비원, 전기공, 도배공, 인터넷수리원, 방역원 등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도정기조작원, 직조기조작원, 사출기조작원, 판금기조작원, 자동조립라인조작원, 발전터빈조작원, 자동차운전원, 소각로조작원, 인쇄기조작원 등
- 단순노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직 등, 예) 건설단순노무자, 배달원, 포장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검침원 등

8. 교육정도별 취업자 구조

취업자 중 대졸이상 비중이 52.1%(265만4천명)로 2013년 처음으로 전체 취업자 중 절반 넘어서
 → 대졸이상 취업자 10년 새 78만2천명 증가 : 2003년 187만2천명 → 2013년 265만4천명
 → 대졸이상 취업자 비중 : 2003년 39.4% → 2013년 52.1%

- 취업자 가운데 대학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2013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취업자 중 대졸이상의 취업자 비중이 1993년 26.9%에 불과했으나, 2003년 39.4%로 증가했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2년에는 49.4%였으며, 2013년에는 52.1%로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 취업자의 가장 주요 학력층이 됨.
 - 고졸이하 취업자 비중은 1993년 73.1%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03년 60.6%, 2012년 50.6%, 2013년 47.9%임.
- 지난 10년동안 학력별 취업자 추이를 보면, 대졸이상 취업자는 2003년 187만2천명에서 2013년 265만4천명으로 10년 새 78만2천명(41.8%) 증가함.
 - 반면, 고졸 취업자는 2003년 201만4천명에서 2013년 179만7천명으로 10년 새 21만7천명(10.8%) 감소
 - 중졸이하 취업자는 2003년 86만8천명에서 2013년 64만6천명으로 10년 새 22만2천명(25.6%) 감소함.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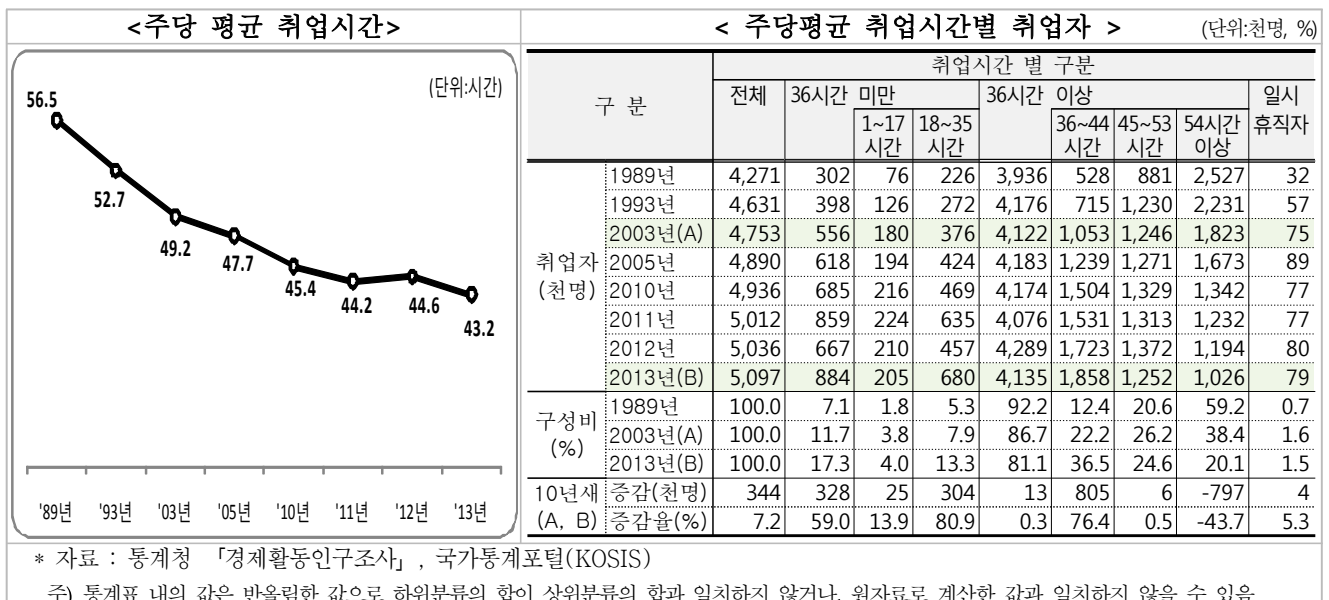
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대졸이상은 4년제미만과 4년제이상 모두 포함임.

9. 주당 평균취업시간

취업자 주당 평균 취업시간 : 2003년 49.2시간 → 2013년 43.2시간

취업시간대별 분포 : 36~44시간(36.5%), 45~53시간(24.6%), 54시간이상(20.1%), 36시간미만(17.3%)

- 2013년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3.2시간으로 1993년 52.7시간, 2003년 49.2시간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2013년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10년 전 대비 평균 6.0시간 감소함.
- 전체 취업자 중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45시간 미만 취업자는 크게 증가하고, 54시간 이상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36시간미만 취업자는 2003년 55만6천명에서 2013년 88만4천명으로 10년새 32만8천명(59.0%) 증가
 - 36~44시간 취업자는 2003년 105만3천명에서 2013년 185만8천명으로 10년새 80만5천명(76.4%) 증가
 - 45~53시간 취업자는 2003년 124만6천명에서 2013년 125만2천명으로 10년 새 6천명(0.5%) 증가
 -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2003년 182만3천명에서 2013년 102만6천명으로 10년 새 79만7천명(43.7%) 감소함.
- 2013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36~44시간 취업자가 36.5%(185만8천명), 45~53시간 24.6%(125만2천명), 54시간이상 20.1%(102만6천명), 36시간 미만 17.3%(88만4천명) 순임.
 - 2003년에는 54시간 이상 취업자가 38.4%(182만3천명)로 가장 많았으며, 45~53시간 26.2%(124만6천명), 36~44시간 22.2%(105만3천명), 36시간미만 11.7%(55만6천명)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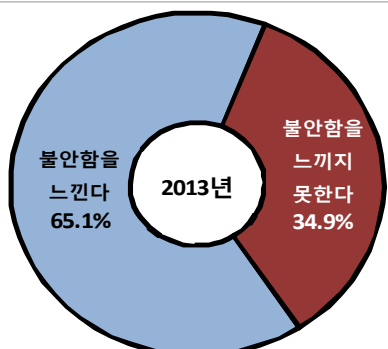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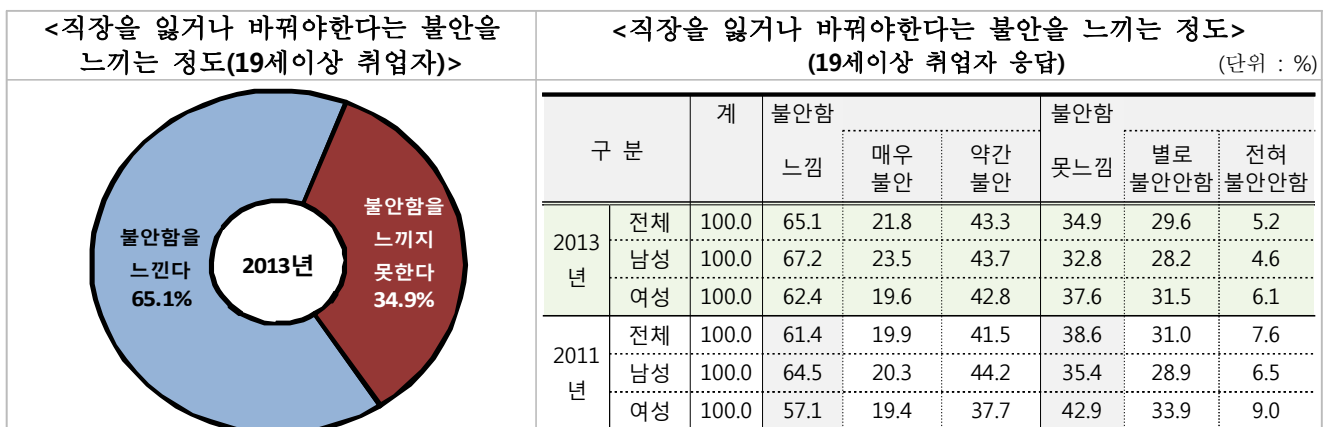


II. 통계로 본 직장인 『자화상』

1. 고용의 안정성

19세이상 서울 직장인(취업자) 65.1%는 “평소 직장을 잃거나 바뀌야 한다는 불안감 느껴” 직장생활에서 고용불안은 남성(67.2%)이 여성(62.4%)보다 더 느끼고 있음

-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19세이상 취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평소 직장(직업)을 잃거나, 바뀌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만19세이상 취업자 중 평소 직장(직업)을 잃거나 바뀌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낀 다라고 응답한 시민은 65.1%(매우 불안 21.8%, 약간 불안 43.3%)로 나타났으며, 불안함을 느낀다는 응답은 남성이 67.2%인데 비해 여성은 62.4%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직장생활에서 고용불안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19세이상 서울취업자들의 고용불안은 2011년 61.4%에서 2013년 65.1%로 3.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이 5.3%p(2011년 57.1% → 2013년 62.4%) 증가였고, 남성은 2.7%p(2011년 64.5% → 2013년 67.2%)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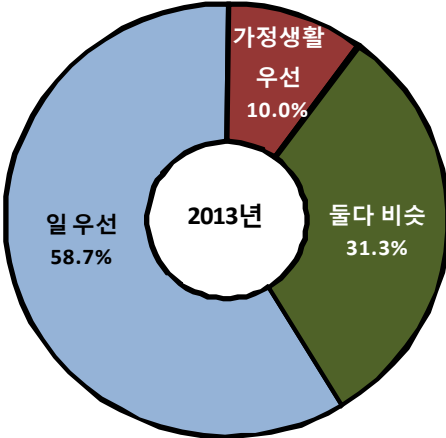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주) 통계표 내의 구성비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조사대상(만19세이상 취업자) : 지난 1주일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을 하였거나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한 적이 있는 자. 부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했거나 일시적인 병, 사고 또는 연(후)가, 육아 및 가족적 이유, 노사분규, 사업부진, 조업 중단 등으로 일시휴직 중이신 분들도 일을 하였다에 해당됨.
 - 질문 : 귀하는 평소 가까운 미래에 직장(직업)을 잃거나, 바꾸어야 한다는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2. 일·가정 우선도

19세이상 서울 직장인(취업자) 절반이상이 “가정보다 일이 우선” 이라고 응답
현재 직장일과 가정생활 중 일이 우선이라는 응답 58.7%, 가정 우선 10.0%, 둘다 비슷 31.3%
일이 우선이라는 응답은 남성 취업자(66.4%)가 여성(48.3%)보다 더 높게 나타남

- 고용불안을 반영한 듯 만19세이상 취업자의 절반이상이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 한다고 응답했으며, 일 우선은 남성이 여성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2013년 만19세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직장 일과 가정생활 중 어느 것을 우선시 하는지 물었더니, 가정보다 일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58.7%(주로 일 우선 29.4%, 대체로 일우선 29.3%)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이 우선이란 이들은 10.0%에 불과하였으며,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31.3%였음.
 - 이러한 응답결과는 2011년(일우선 58.2%, 가정생활 우선 9.7%, 둘다 비슷 32.1%) 과 비슷한 수준임.
- 특히, 남성 직장인들이 일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음.
 - 남성 취업자 중 66.4%는 일과 가정생활 중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 이어서 26.3%는 일과 가정생활 둘다 비슷하다, 가정생활을 우선시 한다는 7.3% 순임.
 - 여성 취업자 중 48.3%는 일과 가정생활 중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 이어서 38.1%는 일과 가정생활 둘다 비슷하다, 가정생활을 우선시 한다는 13.6%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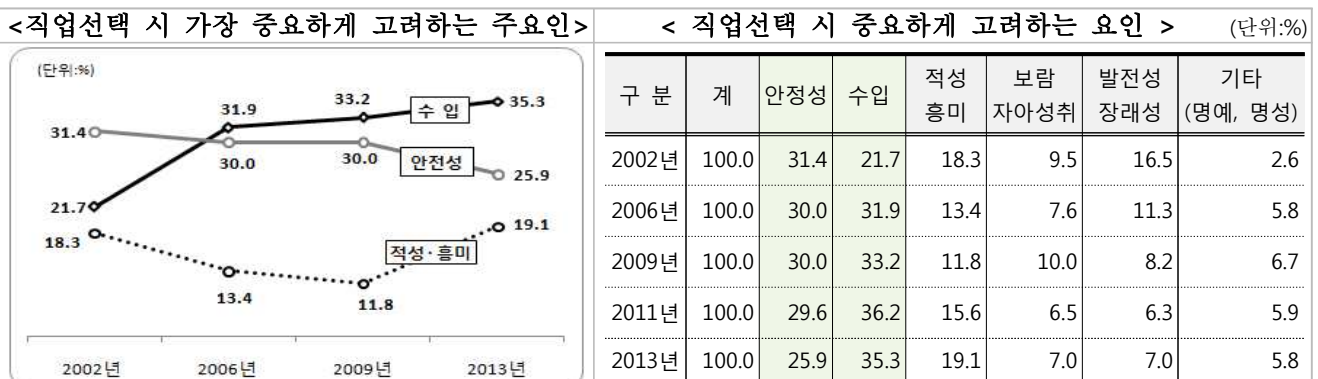
<직장 일과 가정생활 중 우선하는 정도 > (19세이상 취업자)		< 일과 가정생활 중 우선하는 정도 > (19세이상 취업자 응답) (단위:%)							
		구 분	계	일 우선	주로 일 우선	대체로 일 우선	둘 다 비슷	가정생활 우선	대체로 가정생활 우선
 <p>2013년 일 우선 58.7% 둘다 비슷 31.3% 가정생활 우선 10.0%</p>	전체	100.0	58.7	29.4	29.3	31.3	10.0	8.0	2.0
	남성	100.0	66.4	32.2	34.2	26.3	7.3	6.0	1.3
	여성	100.0	48.3	25.6	22.7	38.1	13.6	10.7	2.9
	전체	100.0	58.2	28.8	29.4	32.1	9.7	7.5	2.2
	남성	100.0	65.5	32.2	33.3	28.2	6.3	4.4	1.9
	여성	100.0	47.6	23.9	23.7	37.7	14.6	11.9	2.7

*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주) 통계표 내의 구성비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질문 : 귀하는 현재 직장 일과 가정생활 중 어느 것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까?

3. 직업선택 요인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1위는 “수입” 이고, 다음으로 안정성>적성·흥미 순
 직업선택 시 수입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견해 증가 : 2002년 21.7% → 2013년 35.3%
 직업선택 시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견해는 소폭 감소 : 2002년 31.4% → 2013년 25.9%

-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수입인 것으로 나타남.
- 2013년도 만15세이상 서울시민들이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수입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직업의 안전성 25.9%, 적성·흥미 1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보람이나 자아성취 7.0%, 발전성이나 장래성 7.0%로 현저히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직업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추이적으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임.
 - 2002년의 경우 직업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7%로 안정성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6년 31.9% → 2009년 33.2% → 2013년 35.3%로 증가하여 2006년부터는 직업선택 시 수입을 선호한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안정성을 추월하여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이 됨.
 - 반면, 안전성은 2002년 31.4% → 2013년 25.9%로 소폭 줄었으며, 수입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요인임.
- 또한, 적성·흥미는 2002년 18.3%에서 2009년 11.8%로 줄었으나, 2013년 19.1%로 증가하여 최근들어 직업의 적성이나 흥미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음.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주) 통계표 내의 구성비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에 모르겠음 포함, 2011년 조사대상은 13세이상이고, 나머지자료는 15세이상임.
 - 질문 : 귀하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4. 일자리 만족도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률 27.5%, 불만족 22.9%, 보통 49.6%

만족률이 높은 근로여건 : 인간관계(40.2%), 하는일(34.6%), 성희롱 방지노력(34.5%) 순

불만족률이 높은 근로여건 : 임금(41.1%), 복리후생(33.3%), 직장에서의 장래성(29.5%) 순

-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직장인들은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27.5%에 불과했으며, 근로여건 중에서는 임금에 대한 불만족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3년 서울 직장인(지난 1주일 2013. 5. 4. ~ 2013. 5. 10. 동안 임금근로자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직장의 전반적인 근로여건(일, 임금, 인사, 장래성, 근로시간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현재의 일자리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물었더니 만족한다는 응답은 27.5%이고, 불만족 22.9%, 보통 49.6%로 응답함.
- 또한, 근로여건별 만족도를 물은 결과, 직장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률이 가장 높고, 소득(임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여건별로 만족률이 높은 순위는 인간관계(40.2%), 하는일(34.6%), 성희롱 방지노력(34.5%), 근무환경(29.4%) 등의 순으로 만족률이 높고,
 - 불만족률이 높은 근로여건은 임금(41.1%), 복리후생(33.3%), 직장에서의 장래성(29.5%), 근로시간(25.9%) 등의 순임.

<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정도 >		< 직장의 근로여건(분야별)에 대한 만족정도 > (단위:%)																																																																											
<p style="text-align: center;">2013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2013년 근로여건별 만족정도</th> </tr> <tr> <th>계</th> <th>만족</th> <th>보통</th> <th>불만족</th> <th>모르겠음</th> </tr> </thead> <tbody> <tr> <td>인간관계</td> <td>100.0</td> <td>40.2</td> <td>45.9</td> <td>12.7</td> <td>1.3</td> </tr> <tr> <td>하는일</td> <td>100.0</td> <td>34.6</td> <td>48.9</td> <td>15.6</td> <td>0.8</td> </tr> <tr> <td>성희롱방지노력</td> <td>100.0</td> <td>34.5</td> <td>48.9</td> <td>5.9</td> <td>10.7</td> </tr> <tr> <td>근무환경</td> <td>100.0</td> <td>29.4</td> <td>46.8</td> <td>21.6</td> <td>2.1</td> </tr> <tr> <td>근로시간</td> <td>100.0</td> <td>25.7</td> <td>47.1</td> <td>25.9</td> <td>1.2</td> </tr> <tr> <td>직장내교육훈련</td> <td>100.0</td> <td>24.6</td> <td>52.5</td> <td>14.0</td> <td>9.0</td> </tr> <tr> <td>직장에서의 장래성</td> <td>100.0</td> <td>21.6</td> <td>44.2</td> <td>29.5</td> <td>4.8</td> </tr> <tr> <td>복리후생</td> <td>100.0</td> <td>19.1</td> <td>44.2</td> <td>33.3</td> <td>3.4</td> </tr> <tr> <td>인사관리</td> <td>100.0</td> <td>18.4</td> <td>55.3</td> <td>21.2</td> <td>5.0</td> </tr> <tr> <td>임금(일에 비해)</td> <td>100.0</td> <td>16.7</td> <td>41.2</td> <td>41.1</td> <td>1.0</td> </tr> </tbody> </table>					구분	2013년 근로여건별 만족정도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모르겠음	인간관계	100.0	40.2	45.9	12.7	1.3	하는일	100.0	34.6	48.9	15.6	0.8	성희롱방지노력	100.0	34.5	48.9	5.9	10.7	근무환경	100.0	29.4	46.8	21.6	2.1	근로시간	100.0	25.7	47.1	25.9	1.2	직장내교육훈련	100.0	24.6	52.5	14.0	9.0	직장에서의 장래성	100.0	21.6	44.2	29.5	4.8	복리후생	100.0	19.1	44.2	33.3	3.4	인사관리	100.0	18.4	55.3	21.2	5.0	임금(일에 비해)	100.0	16.7	41.2	41.1	1.0
구분	2013년 근로여건별 만족정도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모르겠음																																																																								
인간관계	100.0	40.2	45.9	12.7	1.3																																																																								
하는일	100.0	34.6	48.9	15.6	0.8																																																																								
성희롱방지노력	100.0	34.5	48.9	5.9	10.7																																																																								
근무환경	100.0	29.4	46.8	21.6	2.1																																																																								
근로시간	100.0	25.7	47.1	25.9	1.2																																																																								
직장내교육훈련	100.0	24.6	52.5	14.0	9.0																																																																								
직장에서의 장래성	100.0	21.6	44.2	29.5	4.8																																																																								
복리후생	100.0	19.1	44.2	33.3	3.4																																																																								
인사관리	100.0	18.4	55.3	21.2	5.0																																																																								
임금(일에 비해)	100.0	16.7	41.2	41.1	1.0																																																																								
<p>* 출처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지난 1주일 동안 임금근로자로 일한적이 있는 자</p> <p>주) 통계표 내의 구성비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p> <p>- 현재 일자리 만족정도는 근로여건의 모든 근로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일자리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응답임.</p> <p>- 근로여건 설명 : 인사관리(승진, 배치, 이동), 근무환경(안전, 위생상태 등), 인간관계(상하, 동료간)</p>																																																																													